# 지역균형 뉴딜 행보…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점검

### 문 대통령, 부산서 보고회 참석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 모색
###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찾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관련 11번째 방문이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이 서로 힘을 합쳐 800만 시도민 공동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인접한 자치단체가 초광역권으로 협력해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구축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부·울·경은 경제·생활·문화·행정공동체라는 4대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2040년 인구(792만 명→1000만 명), 지역 내 총생산(275조 원→491조 원), 외국인 관광객(200만 명→1000만 명)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선 부전역을 방문, 관계자로부터 '동남권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과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라는 행정공동체 구성 계획 발표를 들은 뒤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로 이동,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과 '동남권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가덕도는 부·울·경 주민들의 숙원인 신공항 예정지로 동남권 물류 플랫폼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문화공동체 조성에 있어 중요한 과제인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부산신항에서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등 경제공동체 방안을 포함한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청취하고 부산 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방문과 관련, "초광역 협력이 핵심으로서, 앞으로 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주형 기자

**미래 유권자들이 체험하는 개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41일 앞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개표 체험장에서 어린이들이 실제 개표소와 같은 시설과 과정으로 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소한 투·개표 체험장은 오는 3월 2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미군기지 주변 개발에 올해 1조5000억 투입

정부가 올해 전국 주한미군 기지 주변 개발을 위해 111개 사업에 걸쳐 총 1조5035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 1733억 원, 지방비 1838억 원, 민간투자 1조464억 원 등 총 1조5035억 원이 지원된다.

우선 인천 캠프 마켓 기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7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과 화성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15개 사업에 3240억 원이 투입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군산 공항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등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93개 사업에는 1조1095억 원이 투입된다. 이주형 기자

# "백신 접종 후 15분간 관찰 필수"

### 오늘부터 접종…주의사항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2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대상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리고 무엇보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는 언제, 어디서 접종할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만약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접종기관에 알린 뒤 접종을 연기하고 일정을 새로 잡는 게 좋다. 특히 약물이나 음식, 다른 백신 접종 등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더 주의해야 한다.

수 분 혹은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비롯해 다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증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도움이 된다.

접종을 마친 후에는 최소 15분, 보통은 30분 정도 접종 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을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에는 접종 부위가 붓고 발열,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부분은 3일 이내에 나아지지만,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39도 이상으로 고열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이상 반응이 의심된다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이주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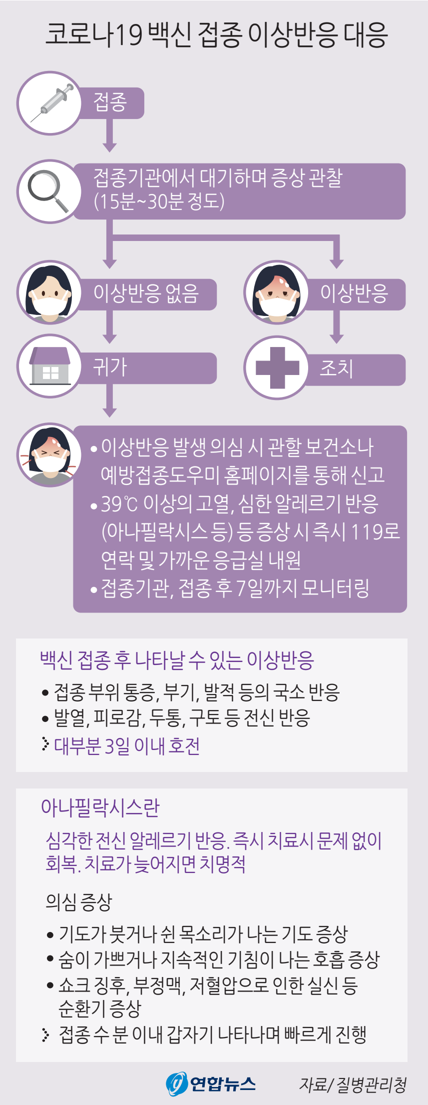
## 예방접종 디지털 증명서 추진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디지털 증명서'를 발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백신을 맞는 모든 접종자에게 발급하게 될 예방접종 증명서의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명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26일 백신 접종 개시와 함께 정부24(www.gov.kr)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을 통해 접종자가 국문·영문으로 예방접종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한 상태다.

이 증명서를 지참하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등 방역지침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주형 기자




## 美, ICBM 시험 발사… 對北 미사일 방어 능력 확인

### "北에 초점" 언급 후 '미니트맨-3' 발사

미국이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언급한 지난 23일(현지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다.

25일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부(AFGSC)에 따르면 태평양 표준시로 23일 오후 11시49분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미니트맨-3을 시험 발사했다. 미니트맨-3은 약 4200마일(6760㎞)을 비행해 태평양 마셜군도의 콰절린 환초 인근 해상에 설정된 표적 구역에 떨어졌다.

이번 시험 발사는 무기 시스템의 효과성, 준비성, 정확성을 검증·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핵 억제력이 21세기 위협을 억제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신뢰를 주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미 공군은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은 북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능력을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